

고규홍의 '나무생각'



도시의 나무에게 말하는 법

20년 전 이 도시로 집을 옮겼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가족나무 가로수였다. 새로 조성한 도시, 새로 심은 가로수여서 그리 큰 나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잘 자라서 이를 무성한 초록 풍경의 기대만으로도 마음은 풍요로웠다.

가족나무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어 비교적 현대받는 나무 가운데 하나다.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에도 "줄기가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 목수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무"라며 가족나무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했다. 그러나 장자는 목수에게 쓸모없는 나무라 해도 다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나무 못지않게 훌륭할 수 있다는 여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 풍요로운 생김새만으로 가족나무를 '천상의 나무'(Tree of Heaven)라고 예찬한다. 가족나무는 곧은 줄기가 균결할 뿐 아니라, 줄기 위층에서 사방으로 펼쳐지는 가지가 유난히 싱그럽고 넉넉한 생김새를 가졌다는 점이 목재로서의 쓰임새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다. 길가에 줄지어 선 가족나무 가로수는 도담도담 잘 자라났다. 도심의 공해와 매년 속에서도 나무는 어김없이 초여름이

면 가지 끝에서 노란 꽃차례를 무더기로 피워올렸고, 잘게 피었던 꽃잎이 시들어 떨어질수록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며 남다른 풍경을 자아냈다. 좋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느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싱그러운 가족나무 터널을 이루리라 하는 기대가 차츰 부풀었다.

집을 나설 때마다 가족나무를 바라보며 지내던 3년 전의 어느 봄날 아침, 전기톱 소리가 요란했다. 그토록 기특해 보이던 가족나무들이 귀경을 찢는 전기톱 소리와 함께 한 그루 두 그루 넘어갔다. 놀란 마음에 시청의 가로수 담당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가족나무를 천상의 나무로만 생각하고 가로수로 심던 그때에는 몰랐던 사정이었던 가족나무들이 귀경을 찢는 전기톱 소리와 함께 한 그루 두 그루 넘어갔다. 놀란 마음에 시청의 가로수 담당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가족나무를 천상의 나무로만 생각하고 가로수로 심던 그때에는 몰랐던 사정이었던 가족나무들이 귀경을 찢는 전기톱 소리와 함께 한 그루 두 그루 넘어갔다. 놀란 마음에 시청의 가로수 담당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게다가 중국에서 들어온 붉은꽃매미의 서식처로 가장 좋은 나무가 가족나무라고도 했다. 도시민으로서 승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안타까웠다. 사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이 한산한 이면도로 쪽의 가족나무 몇 그루를 남겨 놓은 게 그

나마 다행이었다. 가족나무 베어낸 자리에는 대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잘 견디는 이팝나무가 채워졌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가족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한데 그때 베어 내지 않고 남긴 이면도로의 가족나무 가로수는 애초의 기대처럼 잘 자랐다. 마치 사람에게 의해 생명을 얻었다가 사람의 손에 죽어간 나무들의 원을 대신하기라도 하듯, 무성하게 자랐다. 몇 그루는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너머까지 가지들을 뻗었다. 맞은편의 나뭇가지와 만나면서 곧 싱그러운 가족나무 터널을 이룰 기세다.

하지만 여기는 도시다. 낙관은 아직 이르다. 줄지어 서 있는 20여 그루 가운데 일부는 수세(樹勢)가 무척 약했다. 무성하게 이어지던 가로수 무리의 한쪽 나무는 봄 지나도록 초록 잎 한 장 돋우지 못했다. 죽은 것이다.

이유가 있었다. 죽은 두 그루의 가족나무가 서 있던 자리는 인근에서 맛나기로 소문난 식당 바로 앞이다. 밑둥에는 식당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게다가 워낙 유명한 식당이어서 순번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식당 문 앞 가족나무 곁에 항상 즐비

했다. 나무가 죽은 이유는 분명했다. 굳이 해꼬지를 하지 않았다 해도 나무는 사람들의 발길을 견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서 조금씩 새어나온 염분도 견디기 힘들었던 게다.

사람과 나무가 더불어 산다는 게 도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나무가 죽음으로 보여 주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져 지나는 행인을 다치게 하지 않아도, 혐오 근충인 붉은꽃매미가 왕령거리지 않아도 도시의 나무는 삶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시인 손택수는 도시의 나무에 핀 꽃을 보고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나무의 수사학’ 중에서)라고 썼다. 반어법이 아니라, 아무런 꾸밈없이 그저 도시에 꽃이 피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은 정녕 올 수 없는 것인가, 안타까움이 깊어진다. 반어인지 직어인지 은유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이 무성한 이즈음, 나무와 평화롭게 나눌 수 있는, 진정성이 가득 담긴 침묵이 그림다.

〈나무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社說

사전투표제 적극 활용 소중한 주권 행사하자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 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3512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사전 투표는 그동안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도 선거 승리를 위한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투표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 투표할 때는 기표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 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투표율은 11.5%였으며, 2016년 20대 총선 12.2%, 지난해 19대 대선 26.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총선의 경우 19대 때 54.2%였던 전체 투표율이 20대엔 사전 투표 도입 덕분에 58.0%로 높아지는 등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정상회담 등 거대 이슈에 묻힌 데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 기간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

라돈 피해 위험 10만 명...범정부 대책 마련을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한 피해 위험 인구가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도 라돈 침대가 2000여 개가량 판매됐고 한국부인회 순천·여수 지회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모두 343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볼 때 침대에서 시작된 '라돈 포비아'가 지역에서도 현실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라돈이 검출된 대전 침대를 사용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발표한 환경성 질환 현황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25일 발표한 연간 피폭선량 초과 대전침대는 2010년 이후 생산된 것만 21종 8만7749개에 달했고 2010년 이전 생산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 이하라고 해도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석면, 시멘트 공장 등의 영향으로 환경성 질환을 갖게 된 피해자는 1만81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라돈 침대 파동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21일 정부는 대전 침대 매트리스 6만여 개를 한 달 이내에 전량 수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고작 6천여 개만 수거된 상태다.

게다가 라돈의 방사능에 노출된 사용자들의 역학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대나 수질 오염 피해자들과 달리 위대한 생활용품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급이라도 라돈 파동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원안위,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한상원 세계로병원장

가슴 통증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흉통의 원인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소화기 질환이 50% 정도로 가장 흔하고,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은 10~20%이며 가슴뼈 주변 연골·근육이나 폐 문제 등이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 질환에 의한 흉통, 즉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장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다. 대표적인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협심증과 심근 경색이 있으며 이로 인해 흉통이 나타날 수 있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흉통은 쉴 때는 괜찮다가도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걸을 때 잘 발생한다. 심장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협심증은 심장 근육이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쉬면 몇 분 안에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심근 경색 환자는 가만히 쉬고 있어도 가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흉통을 겪는 환자들은 대체로 '조인다' '답답하다' '타는 듯하다' '찌근하다'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또한 팔, 목 또는 어깨로 방사되

는 통증, 오심, 구토 및 식은땀 등의 증상을 흔히 수반한다.

협심증과 심근 경색으로 나타나는 흉통은 성격이 비슷하지만 심근 경색으로 인한 흉통은 30분 이상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급성 심근 경색은 병원 도착 전에 심장 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을 동반한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소화기 질환에 의한 흉통은 소화와 관련된 장기의 이상으로 인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소화와 관련된 장기는 주로 가슴 부위에 걸쳐 있어 협심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도에 의해 발생하는 흉통은 협심증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다. 역류성 식도염은 앞가슴 부위뿐만 아니라 등쪽까지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통증이 명치 끝이나 흉골 아래쪽으로 타는 듯 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누운 자세나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더욱 악화된다. 제산제를 복용하는 경우 통증이 완화된 수 있으며 상태를 높인 자세만으로도 통증이 경감되는 특징을 보인다.

식도 경련은 식도 근육과 신경의 장애로 일어나는데 흉골 하부에 타는 듯하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며 등, 팔,

턱 등으로 방사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식사 중이나 식후에 발생하고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될 수 있다. 평소 운동을 할 때 흉통이 없으며 음식을 삼킬 때나 위 내 음식물의 역류 등으로 통증이 유발된다면 식도 경련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늑골과 연결된 연골 및 늑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 기침을 심하게 했거나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 발생하며 협심증과는 달리 손가락으로 통증 부위를 눌러보면 심하게 아픈 부위가 있다. 대상 포진에 의한 흉통은 스틱기만 해도 아픈 극심한 흉통으로 나타나고 보통 발진과 수포를 보인다.

더불어 폐질환 중 폐색전증에 의한 흉통은 심근 경색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인 원인으로도 흉통이 발생한다.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흉통이 생겼을 때 심장 질환부터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인별 흉통의 양상과 위치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고



황옥주 광주수필문학회회장

독서는 취미가 아닌 필수

교사다. 어떤 삶을 꼭 짚어 성공이라 말할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의 지향점은 있어야 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책이다.

오늘날은 돈이 쥐락펴락 사람을 놀리고 체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럴수록 좋은 스승을 만나야 생이 헛되지 않는다. 사회에 나와 좋은 스승은 만나기도 사귀기도 어렵지만 인생의 답문을 나눌 수 있는 스승 될 책을 택하는 일은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사람의 육체 속에는 꼭 채워 놓아야 할 큰 공간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뱃속이요 다른 하나는 머릿속이다. 뱃속을 채우지 못하면 생이 끝나고 머릿속이 비면 비틀거리고 흔들린다. 두 공간을 채우는 일은 죽을 때까지, 인생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물의 가장 고급 육망은 뱃속 채우기 부터 시작된다. 머릿속은 비어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돼지들의 삶이 좋은 보기가. 뱃속은 돈이 채워주기 때문에 돈이 보이는 곳이면 썩은 시궁창에도 기꺼이 엮어진다. 그걸 추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문제는 충분히 가지고 고도 더 갖고자 비열하게 온갖 머리를 굴

리는 행태다.

지난 3월 28일자 한 중앙지에 아주 흥미로운 만평이 실렸었다. 단 두 컷이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색안경을 쓰고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여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정자 본인은 운전석 여인이 몰고 가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다. 청소로봇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인지하고 나서 움직이는데 꼭두각시는 말 그대로 꼭두각시다. 잘못도 죄의식도 모른다. 머릿속이 비면 판단 의식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돈다발로 채워져 있다. 그냥 돈다발이 아니라 '온갖 불법 자금'이란 설명이 이해를 도와준다. 나 같이 머리가 아둔한 사람은 '돈'과 '불법 자금'을 구별하지 못할까봐 그랬을 것이다. 치졸하게 돈만 쫓다 보면 고갱이가 썩는다.

영국의 수상을 두 차례나 역임한 디즈레일리는 "단 한 권의 책밖에 다른 책을 읽은 적이 없는 인간을 경계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다양한 색깔의 자연이 아름답듯 다양한 책을 읽어야 폭넓은 사람이 된다.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독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지난번 문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

년간 수험서나 교과서, 학습서나 만화 등을 제외한 책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이 60%도 안 된다. 참으로 부끄러운 통계다. 문제의 심각성은 재작년보다 떨어졌다. 사실이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백 사람의 문태누가 "독서하는 것과 같이 영속적인 쾌락은 없다"고 해 보았자 말장 헛소리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독서광임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진 바다. 이 순간도 그분은 어떤 책인가를 펴 놓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품위 있는 지도자가 부럽다.

최근부터 독서에 대한 나라의 교육 정책이 조금 바뀐 모양이다. 7월 1일부터 책과 공연에 지출하는 돈은 소득 공제해 준다든가 초등 3학년부턴 고등학교까지 10년간 한 학기 한 권 읽고 토론했기 등으로... 제도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를 책임질 싹들을 키울 지방분을 독서에서 얻으려는 의도가 신선하다.

독서도 시기가 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혀지지 않으면 휴지만도 못하다. 개인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독서가 애국이다.

無等鼓

혈통·문벌·재산·공직 등으로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정치적·법제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귀족이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귀족들의 특권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명예나 재산 등은 갖되 군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왕족이나 귀족들은 여전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영국 해리 왕자와 미국 여배우 메건 마릴의 결혼 소식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영국 왕실에 집중됐다. 해리 왕자는 한 번

이런 경험이 있는 혼혈 여배우를 스스럼없이 선택했다. 모든 여성의 부러움을 산 메건 마릴은

복종 서약을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인기가 시들했던 영국 왕실은 이번 결혼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영국인들의 호감을 샀다. 그런데 요즘 대한항공 일가 등 재벌들의 갑질·허세와 대물림 등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과거 중세 시대의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군림하려 하고, 특권을 누리며 주변을 불변하게 하고 있으니...

노동자 중에도 귀족은 있다. 임금 수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예를 들어 기아

광주형 일자리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난감한 모양이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정규직 임금 수준을 4000만 원으로 하향 평준화해 후퇴시키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므로 반대한다"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40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귀족 노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라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광주형 일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
|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월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br>(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br>(FAX 222-4938) | 경 영 지 원 국 220-0515<br>(FAX 222-8005) | 문 화 사 업 국 220-0541<br>(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
| 정 치 부 220-0632  | 문 화 부 220-0664                   | 《FAX 227-9500》 《FAX 222-0195》        |                                      |
| 사 회 부 220-0642  |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사 회 2부 220-0652   | 체 육 부 220-0697                   | (FAX 02-773-9335)                    |                                      |
|   | 사 진 부 220-0693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